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 전남 시·군의장협 회장 추대

배종범〈사진〉 목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전남 시·군의장협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배 의장은 이날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에는 전정철 담양군의장, 양영모 신안군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신임 배종범 회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전남 22개 시·군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광산구 중간간부 리더십 컨퍼런스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사진)는 최근 민선 5기 후반기 구정방향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중간간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상상·소통·공감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국·소·동 단위 6급(팀장) 이상 144명을 6개 그룹으로 나눠 한달 여동안 광산동 월봉서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한 '산상대화'(山上對話) 시간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민형배 구청장은 "자치가 진보이고, 참여가 민주주의"라면서 "시대정신에는 소망이 담겨있고, 중간 간부들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원태기자 wtkee@

박정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물' 혼불문학상 선정

소설가 최명희를 기리고자 전주문화방송이 제정한 제2회 혼불문학상에 박정윤(여·41)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물'이 선정됐다고 출판사 다산북스가 12일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소설가 박범신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독, 사랑이 실감나게 묘사돼 있다"고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고 당선작은 10월 다산북스에서 출간된다. /연합뉴스

임시정부 숨은 영웅 조지 쇼우 50년만에 건국훈장 독립장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영국인 사업가 조지 쇼우(1880~1943)의 후손에게 50년 만에 훈장이 전수된다.

국가보훈처는 쇼우의 손녀인 마조리 허칭스와 증손녀인 레이첼 사씨를 초청해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건국훈장 독립장 전수 행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쇼우는 1919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통제를 실시하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이륭양행 2층에 단둥교통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륭양행에서 경영하는 무역선을 이용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운반, 군자금 전달, 독립운동가의 출입국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쇼우의 공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나 그동안 유족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17세 여수 소녀 문지영양 에틀링겐 피아노 콩쿠르 우승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연주자 될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모든 걸 잊고 연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지난 8일(독일 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제13회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문지영(17)양.

이 콩쿠르는 중국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과 한국의 손열음 등을 배출한 명망있는 대회다. 한국 출신으로는 3번째 우승이다. 대회 심사위원들은 음악적 상상력이 17세 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평했다.

문양은 걸음마를 뗄 때인 2돌때부터 피아노와 만났다. 문양은 "집에서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던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따라 했다"고 말했다.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7년 3살 때 국제금융위기(IMF) 사태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져 피아노를 팔았다. 하지만 문양의 남다른 재능을 본 부모님의 헌신으로 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지역 대회를 휩쓸었고 공부도 잘해 늘 상위 10% 안에 들었다.

문양의 집엔 피아노가 없다. 부모님이 지체장애 2·3급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 매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어려움은 독서로 뚫었다. 음악관련 전문서적과 각종 교양서적 등 지금까지 읽은 책만 해도 셀수 없을 만큼 많다.

지난 2010년 금호 영재 콘서트에 출연한 문지영양. 〈사회공동모금회 제공〉

12살 때 선화 음악콩쿠르 대상, 음악 춘추 콩쿠르 3위에 입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뒤 2년간 선화음악영재 아카데미에 다니며 실력을 닦았다. 2009년 폴란드에서 열린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도 공동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양은 벌써 검정고시로 고교과정을 마쳤다.

"4년전 서울에 있는 예술중학교에 합격했지만 형편상 포기했어요. 대신 집에서 공부하고 교회와 학원이 쉬는 날 하루 8시간 이상 피아노를 연습했어요."

문양은 3년전 음악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 메세나 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아트 드림 콩쿠르'를 처음 개최한 것. 이 대회 중등부 대상을 받은 문양은 피아니스트 김대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를 만나 일주일에 한 번 개인 교습을 받았다.

예술분야 영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수업료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김 교수를 비롯한 스승들은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음악적 탐구력과 열정이 대단한 제자라 평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무궁화호를 타고 다녔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고 찜질방에서 잔 적도 많지만 레슨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기뻤어요."

문양의 사연을 접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 이사회에서는 최근 피아노를 사주기로 결정했다. 4년전 부터는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문양은 5000유로(한화 약 700만원)의 상금과 독일에서 연주회를 열 기회를 얻었다.

"러시아의 명피아니스트 에밀 길렐스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김대중에게는 노벨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 있었다"

김택근씨, 파란만장 DJ일대기 '새벽 김대중 평전' 발간

"이 인사말로 김정일은 서방세계의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 낸 유령의 집에서 빠져나왔다. '성격이 음울하고 잔인해서 기쁨조들과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방탕한' 인물이 아니었다. 김정일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에 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상대가 김대중이기에 그는 부풀어 있었다."(334쪽)

김대중 자서전 편집위원이었던 언론인 출신 김택근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그의 인생 역경과 정치적 업적을 한편의 소설처럼 생생하게 풀어쓴 '새벽 김대중 평전'(사계절 刊)을 펴냈다.

2년에 걸쳐 김 전 대통령과 41회 구술한 내용과 국정노트, 일기,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통령의 숨결을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저자는 김 전 대통령을 직함 없이 '대중', '김대중'으로 지칭하며 그를 주인공으로 한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펼쳐보인다.

책 속에서 의젓한 소년의 모습으로 등장한 김 전 대통령은 소용돌이치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모진 역경을 딛고 한반도 민주주의를 일군 '거인'으로 묘사된다.

새롭게 공개된 정계 뒷얘기도 눈길을 끈다.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는 편지가 한국 특정 지역에서 쇄도했다는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안기부 안에 노벨상 방해 공작팀이 실존했다는 내용 등이 소개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압박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학살을 중지시킨 사연 등 숨겨졌던 일화도 공개된다. /연합뉴스

K-water 전남본부 영산강 사진공모전 시상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는 지난 10일 영산강문화관에서 영산강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 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모전 금상은 이광남씨가 출품한 '승촌보의 카멜레온'이 차지했다. 은상은 '영산강의 자존심과 죽산보의 밤'(작가 한상호)과 '석관정에서 시 한수를…'(작가 박규숙)이 수상했다. K-water 전남본부는 영산강 사진 공모전 수상작품들을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산강문화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보훈청 광복절 앞두고 '태극기 거리' 조성

광주보훈청(청장 안중현)은 오는 15일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산구 임방울 대로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주변에 태극기의 거리를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1.4㎞ 구간 임방울대로 양 도로변에는 모두 110개의 태극기가, 합동청사 주변 거리에는 54개의 태극기가 게양됐다.

광주보훈청은 "이달 한 달 동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위해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도시락 담기 봉사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역자활센터 자미푸드 도시락 업체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도시락 담기와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의회 제공〉

무안경찰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무안경찰은 지난 10일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 마을 어르신 140명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는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휴무인 경찰관과 의경, 자율방범대 등이 자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우수 자원봉사 중·고생 시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국훈)은 지난 10일 우수 자원봉사 중·고교생 12명을 선정, 시상했다. 수상 학생들은 병원측이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과 심폐소생술교육, 봉사활동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강진 무위사 108 산사 순례기도회 봉행

농촌사랑 홍보대사인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과 5000여명의 순례 기도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강진 무위사에서 108 산사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밝은광주안과-전방군제㈜ 지정병원 협약

밝은광주안과(대표원장 김재봉)와 전방군제(주)는 지난 10일 전방군제 회의실에서 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밝은광주안과는 전방군제 직원·가족들의 눈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상호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달성판서공파조 추모제(회장 배신수)=9월 4일(화) 오전 11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수동중학교(참여대상은 함양군민 및 배씨후손)

알림

▲신용회복위원회=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등을 지원.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금남로5가 금호종금빌딩 6층·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1577-6065) 개통. 지역 취업지원센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아름다운 가곡부르기 회원모집=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이태리, 독일, 한국가곡) 2012년 2학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062-520-4243.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5기 학생=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어·한시·웃음치료·노인상담 심리학, 접수기간은 14일(화) 오후 5시 까지(토·일·공휴일 쉼) 전화통화 후 본인지참(입학금10만원), 합격자 발표는 24일(금) 개별통지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광주 동구 대의동13-2 동부경찰서 옆 무등 공증사무소 5층) 062-223-1357, 010-2646-5023.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부음

▲한재희씨 별세 기문·기경씨 부친상=발인 14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이창현씨 별세 승기·승록·승열·승연씨 부친상=발인 1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맹순씨 별세 조병양·병주·정숙·형숙씨 모친상=발인 13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송진석씨 별세 영훈·영희·순희·정희·혜숙씨 부친상=발인 13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정심씨 별세 정재홍·민지씨 모친상=발인 13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박순자(여/78세)
子/子婦 : 이창수 /배정미, 창민/, 창훈 /김수경
女/壻 : 이정미 / 정완용
●호실 : 특실 201호 ●발인 : 8월 13일
●장지 : 불문사 ●연락처 : 227-4381

故 최효신(여/96세)
子/子婦 : /박영순, 이재훈 /박정순, 재욱 /정영순 동선 /노명남
女/壻 : 이덕림/ , 연순/ , 남순 / 박금석
●호실 : 101호 ●발인 : 8월 13일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故 고일순(여/87세)
子/子婦 : 류영달 /김영주, 영운 /나경자
●호실 : 401호 ●발인 : 8월 13일
●장지 : 화순 동면선영 ●연락처 : 227-4383

故 유인창(남/58세)
未亡人 : 최기향 子 : 유창호, 창민
●호실 : 102호 ●발인 : 8월 14일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